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등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상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410~1,422원

■ 미-이란 종전 MOU 연장 협상 불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위험회피 심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또한, 유가 상승을 자극해,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로 약세를 보였던 달러에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환율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지만, 수급상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 물량이 출회할 경우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기에, 미-이란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잔존해 있는 측면도 고려하면, 금일 환율은 1,41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7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0.5원 내린 1,415.6원 마감
14일, 미 PPI 둔화 및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연준 긴축 기대 약화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등에 장중 1,410원선을 하회. 그러나, 저가 매수세와 엔화 약세에 다소 반등해 1,416.8원 마감. 17일, 대체공휴일로 거래량은 제한적인 가운데 엔화 강세가 견인한 약달러에도 중등 긴장 고조된 영향으로 1,410원대 중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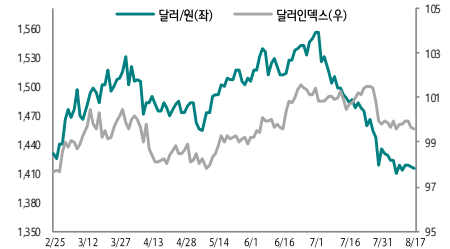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연준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며 달러는 약세를 보였으나, 미-이란 휴전 연장 가능성 일축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대부분 회복
- (유로-달러) ECB의 선제적 금리인상과 연준 금리 동결 기대가 맞물리며 유로화는 강세 보였지만, 중등 불안 속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강보합에 그침
- (달러-엔) BOJ가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엔화가 힘을 받았으나, 중등 지역의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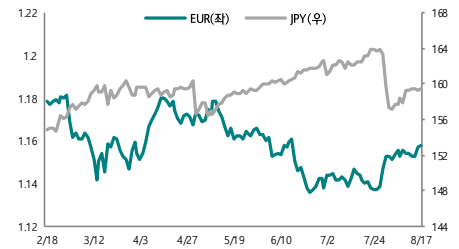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은 FOMC 의사록과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 엔화 변동성 등을 주요 변수로 반영해 움직일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CPI, PPI 등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태임. 시장은 추가적으로 이번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내 매파적 의견의 강도를 파악하여,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음. 이란의 대미 배상 요구와 양국의 MOU 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등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또한, 미-일 당국의 공조 개입 이후 다소 주춤했던 엔화 약세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BOJ의 조기 금리 인상론에도 엔화 약세 전망이 지속될 경우, 원화에도 약세 동조화 영향으로 부담을 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 후반 예정된 한-일 재무차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는지 주목해야 할 부분임. 종합적으로는 상기 대외 요인들이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면서, 금주 달러/원 환율은 1,400원 초반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6.0	1,420.0	1,410.0	1,416.5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80	159.44	6.7425
전일대비	+0.0010	+0.14	-0.0017
재정환율	1,637.48	886.69	209.71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00	독일 8월 ZEW 경제심리지수	-69.3	-77.6
21:30	미국 7월 수입가격(MoM)	0.1%	0.3%
22:15	미국 7월 산업생산(MoM)	0.3%	0.1%

미국 소매판매 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